



2018년 1월 7일(제858호) 주님 공현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실제 이기 예수님의 모습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중 3편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3편의 내용은 인디애나 존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흘린 피를 담았다는 가상의 물건인 성배를 찾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과 악당이 함께 성배를 찾게 되는데, 많은 잔이 있었습니다. 그 잔 중 진짜 성배를 찾아서 물을 마실 때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악당이 먼저 잔을 들고 마십니다. 악당은 그 잔 중 보석이 붙어 있는 가장 화려하고 비싼 금잔을 들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 잔은 진짜 잔이 아니었고 악당은 죽었습니다. 주인공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고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투박한 토기인 잔을 들고 마십니다. 그리고 무사히 함정을 탈출합니다. 영화는 인자하고 지혜로운 십자군 할아버지가 수백 년간 지켜온 성배가 화려한 금잔이 아닌, 투박한 토기였다는 설정을 통해서 거룩한 것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왕궁을 찾아서 왕인 헤로데를 만납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몰랐던 유대인들의 임금을 동방에서 찾아왔습니다. 임금, 왕은 화려하고 강한 권력을 지닌 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이 만난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대단한 것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거룩한 것이 더 하느님 마음에 들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천 년 전 마구간 구유에 누워계시듯,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거룩함을 담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상영신(보니피시오) 신부
동해(해군 1함대) 상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60,1-6
회 답 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 2 독 시 에페 3,2.3ㄴ.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마태 2,1-12
영 성 제 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진례를 살다

양형 영성체

양형 영성체란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만찬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주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니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초대 교회는 최후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처음부터 미사 때에 양형 영성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3세기부터 교우들이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있다는 사목상의 문제와 주님께서 성체 안에 온전히 현존하신다는 신학적 근거를 이유로 이 전통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양형 영성체의 규정을 완화하여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세례미사 등에서 성사를 받거나 서원을 한 당사자는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참조. 전례헌장 55항). 미사경본 총지침은 이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참조. 283항). 소공동체 미사 등 개개의 경우 주도하는 사제, 또는 본당에서 본당 신부는 사목적 판단에 따라 확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양형 영성체를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락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성혈을 흘릴 위험성이 크며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사목상으로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는 오히려 양형 영성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심제

공심제(空心齋)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기 위해 성체를 모시기 일정 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초세기에는 공심제에 대해 정해진 규정이 없었습니다. 새 교회법전(1983년)은 특정한 사람들, 즉 병자, 노약자, 간병인 등에게는 공심제 시간이 영성체 전 15분으로 단축시켰고 중환자의 경우에는 공심제를 면제시켰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공심제 시간 규정이 바뀌어왔지만 공심제의 기본 정신은 변함없습니다. 미사 전 한 시간이나 또는 성체를 모시기 전 한 시간이나 하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합당한 준비를 하고 몸과

영성체와 감사 예식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사의 품위를 알고 오시는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일깨우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성체를 모시기 전에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 침묵기도, 영성체 후 기도

성체 분배 후 사제는 신자들과 함께 얼마동안 침묵 기도를 바치거나 영성체 성가를 하지 않고 알맞은 성가를 노래합니다. 이때의 침묵은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침묵으로 모든 이가 잠깐 영성체 및 미사 전체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 안에 오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미사 중에 몇 차례의 침묵시간이 있지만 의미로 보아 영성체 후의 침묵시간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하거나 또는 침묵 대신 해설자가 묵상 지도라는 명분 아래 별도의 해설을 하는 것은 미사 전례 중에 가장 중요한 침묵 부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자에 성가대에서 특송이라는 이름으로 묵상곡을 노래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특송 후 절대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목자가 그렇게 유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송은 받아 모신 성체께 대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기도의 한 방법이지 공연시간이 아닙니다. 미사 후 또는 공지 시간에 이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기 전에 공지사항이나 여타 다른 사목적 행사를 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체 후 기도로 성찬 전례를 마감하기 때문입니다. 영성체 후 기도는 방금 영성체를 통해 받은 은혜와 미사 전체에 대한 공적인 감사기도이자 방금 거행한 미사의 신비가 실생활 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비는 간청기도입니다. 기도로 영성체 예식, 나아가 성찬 전례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가족사진 찍던 날

아침부터 요란했다.
오랜만에 가족나들이
처음으로 가족사진 찍는 날

언젠지 아물아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그 설레던 날이 생각난다.
참 좋았던 날이

다음에 고향에 가면
가족사진 한 번 찍어 볼까.

이젠 식구도 많이 늘어
쉽지 않겠지만

상화이야기

동방박사의 경배



요고 핀 데이 구스(1440-1482)
1470년 작, 패널 위 유화 150 X 247 cm
시립 미술관, 독일 베를린

새하얗게 눈부신 백옥 같은 피부가 반짝이고 미끄러질 정도로 빛나는 성모님의 무릎에 작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다. 이 그림에서는 아직 신생 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고려할 때, 성모님이 예수님의 왼손을 받치고 계신 점이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온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을 입고, 각기 다른

인종과 연령대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전 세계가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지상의 왕인 박사는, 자신의 왕관을 땅에 내려놓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나,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바라보고 계신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 하나하나가 목직하고 깊이 있는 인격체로 그려져 있으며, 인물들의 의복의 주름, 빛을 통과하는 손 표현 등을 통해서 화가의 세밀한 묘사와 관찰이 엿보인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공현 대축일: 칠백 이민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회의
 때·곳: 1월 8일(월), 전의 정하상 교육회관
 국장회의 13:00, 사제평의회 15:00
- 을지(12사단) 성당 공소 축복식
 때: 1월 13일(토) 16:00

◆ 2018년 시제 피장

- 때: 1월 8일(월)-12일(금)
- 곳: 전의, 정하상 교육회관

“군 복음회,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